

구역부에서는 사랑방을 통하여 벤틀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윤희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사랑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실릴 교구/사랑방 소식이나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고는 구역부 메일함 혹은 이메일 (SMALLGROUP@BETHEL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 년도에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위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랑방 사역: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4 개의 지역 안에 17 개의 교구가 있으며, 80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부 사랑방 소식지팀
 담당 목사: 윤성필



3 월 15 일 시작된 영상 예배가 석달 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자택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현장예배를 중단한지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상예배가 익숙해지고 사태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현장예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히브리서 10:25 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현장 예배는 성도와 사회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재개될 것입니다.

6 월 부터는 사랑방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을 통해서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이미 어떤 사랑방에서는 매주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사랑방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큰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 개월간 수 백 만명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수 십 만명이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희생당해 세계가 슬픔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 사회를 마비시키고, 일상을 멈추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두려움과 경계로, 불안과 분노로 사분오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을 인간 사회에 허락 하시는가? 이 상황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변증할 것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 받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탐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책자를 함께 읽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책자의 각 장을 깊이 숙독하고, 주어진 질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각 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한 신앙의 지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갖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을 정리하고, 또다른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영상으로 모이게 될 사랑방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다져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부름 받은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분명한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벤틀교회 모든 사랑방 마다 함께 하시고, 힘든 시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벤틀교회 소그룹 사랑방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새로운 현장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의 새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식지는 벤틀교회 WEBSITE (WWW.BETHELCHURCH.ORG) 에서 교구/사랑방 사역 PAGE 밑에서 ELECTRONIC VERSION 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사랑방 및 사랑방장 소개

엘리콧 4 교구 2 사랑방 – 김명희 사랑방장



꽃이 만발하고 은혜 비가 축축히 내려 대지를 덮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된 공간에서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아쉽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분의 통치 하에 있음을 믿으니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다짐을 하는 사랑방입니다.

저희 사랑방은 자상하신 신정훈 장로님을 교구장으로 하여 현재 모이는 가정은 열 가정이 넘습니다.

전 사랑방장님을 중심으로 평상시에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고 섬기는 것이

삶이었던 식구들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사랑이 많으신 최명기 장로님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3 월말부터 매 주일 저녁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주일 설교의 나눔 질문을 교재로 하여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도, 광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설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일상이 된 듯 합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설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기도 합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 생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 주인공이 좋아하는 케익을 주문하면 최 장로님께서 즉석에서 맛있는 케익을 만들어 내십니다.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던 중에 코로나 19 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적은 양이지만 마스크를 보내 드렸고, 평소에 홈리스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들 중의 여러 명을 맥으로 모셔와 섬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홈리스가 아니라 성도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윤성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60 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4 절 말씀에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는 말씀은 저희 사랑방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목사님의 기도문은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온 가족이 함께 계신 단톡방이 있어서 모든 식구들이 합심하여 사랑방을 이끌어 가고, 여성분들만 계시는 꽃님이 방이 있어서 나눔을 꽃처럼 예쁘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콧 3 교구 5 사랑방 – 류현경 사랑방장

저는 6 사랑방에 부사랑방장을 하다 남미영권사님의 후임으로 5 사랑방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다섯 가정이 모여 항상 서로를 아끼고 챙기며 백승윤, 백혜선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함께하는 사랑방입니다.

올해 2 월에 이두호 장로님덕에서 장수철 목사님 가족분들과 함께 첫 만남을 모이고 코로나로 교회 모임이 클로즈되어 5 월에 줌을 이용하여 사랑방 모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이 없어 번개 줌미팅을 다시 한 번 더 하여 사랑방 가족사진을 컴퓨터상에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라 zoom meeting 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한 분 한분께 여쭙볼 때 모든 사랑방 가족분들이 흔쾌해 승락하시며 시도해 보시겠다 하시며 카카오톡처럼 zoom 앱을 다운받아 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하여 서로를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방에 이희금 집사님께선 얼마 전 남편분이신 이수태 성도님께서 신장암을 앓다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윤태학 집사님께선 갑자기 구강암임을 알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회복 가운데 계시다 요새 귀에 고통이 있으셔서 다시 의사를 만나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려 합니다.

찾아 뵙지도, 만나 뵙지도 못해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줌미팅을 권유하여 이번 5월에 zoom 을 통해 얼굴을 보며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share 하며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열정을 한번 더 다짐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3•3•3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 번 3 분 30 초동안 사랑방 가족들의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번의 모임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뿌리 깊은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싱그러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령 가득한 사랑방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 벨렐교회 전교인 성경읽기 운동

"성경을 같이 읽어오" - 벨렐 4교구 신정훈 장로님 (hooninmd@gmail.com)

"성경을 읽으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례가 되는 질문이기도하며, 또 달리 보면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라고 반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하는 대답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성경을 왜 읽으니까?"라고 하시는 벨렐교회 성도분은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역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벨렐교회 전교인 성경읽기 운동"이 지난 5월 17일에 시작되어 이제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전체 누적 장수가 15,630 장으로, 성경 전체 장수인 1,189 장으로 나누면 총 13 독 이상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통하여 100 독 이상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께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 소개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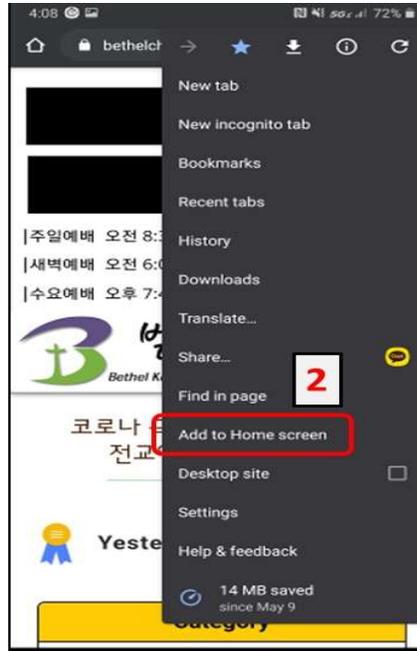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이 프로그램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공연히 개인 신앙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참가하고 싶은데 입력 과정이 너무 어려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굳이 하는 이유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각자가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넘어, 내가 속한 교구 공동체, 더 나아가 벨렐 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접속하여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bethelchurch.org/bible 로 접속하면, 여러 통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 날 여러 성도님들께서 입력하여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교구별 참가자수, 총장수, 평균장수 부문별로 1 등을 한 교구들이 게시되어 있고, 직전 7일 동안의 각종 통계, 그리고 누적 통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 활발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시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벨렐공동체로서의 성경읽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 통계를 확인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분들에게 성경읽기에 대한 동기 부여를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는 것도 의미있고, 하루에 181 장(현재까지 개인 최다장수)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하루 일정에 성경읽는 시간이 마련되어, 매일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신앙 공개에 대하여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내가 속하고 있는 지역과 교구만 밝히시면 됩니다. 혹시 성도분들 중에 교구에 속하여 있지 않은 분은 "교구무소속"을 선택하시면 되고, EM 회중과 청년부 지체들도 "EM" 또는 "청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가 의향은 있으신데, 매일 매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력 링크를 찾는 일이 사실 번거롭고 쉽지 않아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통하여 연결하고 계실텐데, 아래 그림과 같이 bethelchurch.org/bible 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기 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점 세개를 누르고,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Add to Home screen"을 누르면, 전화기 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콘을 통하여 바로 성경읽기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나눔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읽기 프로그램이 올 해 연말까지 진행되니, 가지고 계신 전화기에 지금 바로 단축아이콘을 만드셔서

매일 사용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경읽고, 은혜 받고, 읽으신 대로 입력하고, 또한 같이 은혜를 나누어요!



<특별 기획>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방 소식지에서는 **“New Normal”(새로운 일상)**이란 주제로 백신종 목사님께서 설교중에 언급하셨던 부분을 소개하며 더불어 백목사님께 몇가지 질문들을 드려 목사님의 답변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상 (New Normal)” - 백신종 목사님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한 동안은 엄격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인 개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인 65 세 이상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은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고, 주일학교도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예배참석시 매번 간단한 문진표를 제출하고, 개인 마스크는 교회 머무는 내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실 입실 전에 손세정을 하고, 예배좌석은 안내에 따라서 7ft 간격으로 표시된 예배석에만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다른 모임이나 친교 없이 바로 귀가하고, 예배실 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는 3 단계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19 사태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기에 이미 경험한 일상을 버리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예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도 지난 10 년 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단기간에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소그룹 영상 성경공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영상으로 성경공부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4 대가 아니라 7-8 대 어르신입니다! 평소 교회 갈 준비하고 평일 밤 트래픽에 교회 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영상으로 성경공부 하니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의논하고 준비해도 선뜻 진행하지 못했던 온라인 헌금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해도 헌금바구니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구 헌금통과 온라인 헌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4 월 워싱턴 주의 마운트 버논 장로교회에서 찬양대 연습에 참여했던 60 명 중 48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두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지침에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는 3 단계까지는 찬양대 연습이나 찬양도 다른 순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기와 변화, 교회가 당면한 사역의 환경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임과 사회적인 환경과 사역의 방식은 급격하게 변할지라도, 생명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1. New normal 에서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형식과 방향은 수정이 되고 보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 각 부서들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 내는 선교신학적인 방법론으로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고민하면서 적합한 방향으로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회적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변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질병과 재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된 환경속에서 성도와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정황과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지 사역의 방법이나 소통의 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삶에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론을 연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공감하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지혜와 열정을 모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새로운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Offline 에서 Online 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뽀엘 교회 성도들 중 혹시라도 온라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신앙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고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목회진에서의 목양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사역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사역을 완전히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말까지는 온라인 사역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온라인 소통이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전화기나 태블릿을 갖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인데 가족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기증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단지에서 허락하는 대로 단지내 집회장소를 활용해서 교구 예배나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구 목회진과 권사회의 전화 심방으로 목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 패키지와 점심 배달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New normal 에서 교회가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해야할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내적, 외적 요인)?

'새로운 일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뽀엘교회가 사역의 중심을 담장 너머의 이웃과 사회로 두게 된 것입니다. Columbia Community Care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해서 2 천 가정 이상을 도왔습니다. 케어 패키지 사역은 주로 교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교회 밖의 소수민족과 한인 이웃을 포함해 380 가정 이상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성도와 한인 가정을 위한 개인구제, 점심제공을 위한 히즈러빙핸즈 사역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사역환경을 구축한 것이 큰 변화입니다. 목회진을 중심으로 7 과목의 주중 성경공부를 개설해서 270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심방과 임종, 추모예배등도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New normal 에 따르면 성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교제 여건이 안되는데 성경말씀의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하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상으로 여러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장점들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모였던 여러가지 교회 모임과 행사, 예배등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질 듯 해서요.

온라인 사역 환경이 성경적인 교제와 예배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사역이 장기화 되면서 이 환경에 완전해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 환경이 보완적인 차선책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친밀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직접 대면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역시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대면 사역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코로나 사태와 같이 특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온라인 사역 환경 이라는 차선책을 활용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5.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발적 stay at home 상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무리는 사실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아이들에 관련된 사역들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아울러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느라 지쳐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학교 현장이 문을 닫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교회 역시 대면 사역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소그룹 모임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는 달리 주일학교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서 출결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수동적인 사역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능동적인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이미 준비중에 있으며, 중고등부 수련회 역시 청소년 부흥회 형식으로 '온라인' 진행하도록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온라인 '학부모 세미나'등을 통해서 담당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늘의 양식'이나 성경읽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 하는 것도 좋고 아침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읽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쌓이다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양육과 훈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멘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큰 부담과 고충을 안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사랑방 사역자 온라인 모임

지난 6월 7일 첫째 주일에 사랑방 사역자들 모임이 온라인 줌미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중 목사님께서 존 파이버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책자의 11개의 나눔 교재를 한달에 두번하는것으로 준비하여 그중 2개의 나눔교재를 강의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구별로 모여서 각 교구별 팀장들과 함께 앞으로 행해질 온라인 사랑방 모임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 시작 (*목회서신 7호의 내용 중 일부를 다시 실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둘째 주일부터 제한적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당회원과 목회진, 협동 장로님들이 참석하셨고 이어지는 21일, 29일 주일은 제직과 사랑방 사역자 중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으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현장예배는 7월 5일 주일예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한적 현장예배 참여를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참석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온라인 확인증'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전화기에 다운로드 합니다. 예배 참여 시 안내위원에게 확인하시고, 문진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준비된 서식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는 현장에서 문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는 개인 마스크를 준비해서 예배실 출입 시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실 출입을 위해서는 앞뒤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체온 측정과 손 세정 후에 안내위원의 인도를 받아 '예배석'이라고 표시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예배실 모든 문은 열려 있으며 출입 시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가능한 온라인으로 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은 본당 현관 앞에 준비된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시면 됩니다. 찬송과 기도 시에는 큰 소리를 자제해 주시고 허밍이나 작은 소리로 참여하여 마스크 내 습기가 많이 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